

진안 '전북형 반할주택' 100세대, 사업비 320억

도내 경쟁 속 진안·순창 최종 선정...청년·신혼부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진안군이 군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안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며,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안읍 군상리 909-6번지 일원(대지면적 10,895㎡)에 전용면적 59㎡ 규모의 공동주택 1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 160억 원, 도비 80억 원, 군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과 시공을 맡는다. 진안군은 공모 과정에서 사업의 '즉시 실행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와 진입도로에 대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사전에 100% 확보했으며, 표고와 경사도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입증했다.

해당 부지는 진안을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행정·의료·교육·상업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이 용이해 정주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주거·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진안읍 전반의 거주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모든 입주민에게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반할 임대료'가 적용되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면제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서주 기자

군민의 내 일(Job)이 행복한 임실만든다

발로 뛰는 현장 매칭...임실군 로컬 JOB센터, 도농 상생형 일자리 플랫폼으로



전북 임실군이 지역 고용 시장의 실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실군 로컬JOB센터'가 현장 중심의 행보로 지역 주민과 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도시 지역의 정형화된 고용 서비스에서 벗어나, 임실군만의 특수한 고용 환경을 반영한 '도농 상생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단순히 구인 정보를 공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관내 농가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조율하는 '발로 뛰는 매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인-구직 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돋보인다. 센터는 원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구직자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을 채용하는 경영체에는 중식비를 보조해 고용 부담을 낮췄다.

특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세심한 행정으로 풀이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일지리는 군민의 행복을 지탱하는 가장 큰 복지이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로컬JOB센터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희 임실군 로컬JOB센터장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센터 구성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며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며, "단순

한 연결을 넘어 구직자에게는 내 일(Job)을 통한 자부심을, 기업과 농가에는 인력난 해소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임실읍 봉화로 80, 행복나눔센터 3층에 위치해 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군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실군은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철석 오수관농협 조합장과 임실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임실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전라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오수면에 건립됐으며, 연면적 1,717㎡,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기숙사는 총 29개의 객실을 갖추고 최대 87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각방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농번기를 앞두고 3월말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40여명이 이 기숙사에 입주해 본격적인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인력보호는 물론, 농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민 기자

전주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사업을 추진한다

모범음식점 130여 곳 영어·일본어·중국어 메뉴판 보급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전주의 우수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역 모범음식점 130여 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할 때 겪는 가장 큰 불편인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전주의 식당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우수한 서비스로 시의 인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

인 관광객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을 널리 알리고, 참여 영업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3월 전주시역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총 13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오는 7월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메뉴 자료 수집과 외국어 번역, 디자인 시안 확정 등 맞춤형 메뉴판을 제작해 각 업소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 고유의 향토음식이나 업소별 특색 있는 메뉴가 낯선 외국인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 위해 메뉴들의 맛과 재료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업소별 맞춤형으로 메뉴판을 제작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국어 메뉴판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메뉴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해당 언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범음식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타상용 아크릴 스탠드와 출입문 안내 스티커도 함께 배부한다.

아울러 메뉴판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간 메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정해 주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승민 기자

군산,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시스템 신시장 선점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킹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하여,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2024년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실증센터가 준공되고 IMW급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저탄소 연료 저장·

공급 시스템, 3MW급 혼합연료 증속엔진 등 핵심 평가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는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등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대규모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 모빌리티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까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시운전 및 통합시험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험평가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보급하고, 실증 기반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영임 기자

정읍시, 신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시동

2일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 개최해 의견 수렴

정읍시가 2일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과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정책 목표를 비롯해 마을 협동조합 구성 방식, 주민 참여 절차, 사업 추진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농지, 유휴 부지, 저수지 주변 공간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절차와 운영 방식이 상세히 소개돼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관내 17개 마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실제 참여 마을을 단계적으로 선정해 탄탄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업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행정, 전문가, 중간 지원 조직, 유관 기관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구축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시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는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2026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 조기 마감



고흥군은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개최되는 '2026 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의 참가 신청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공식 모집 전부터 동호인들의 문의가 잇따랐던 이번 행사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며 단기간에 정원 400명을 채워 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거름도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달리는 '친환경 프리미엄 스포츠 관광' 모델

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녹동항과 거금도 일원의 청정 바다를 만끽하며 고흥만의 독보적인 투어 코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라이딩을 넘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더했다. 행사 첫날인 25일 저녁에는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고흥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한다. 26일 라이딩 행사 중에는 코스별 스탬프 랠리와 지역 특산품 시식 행사를 운영해 오감 만족형 체류형 관광의 묘미를 살릴 예정이다.

우덕현 기자

광주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해

광주광역시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에 대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무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

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

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병두 정책관은 "이 사업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은 4월 1-2일 이틀간 전북 번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2026년 제1회 특수사고 대응 및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개최했다. 119특수대응단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연찬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권일 기자